

2019학년도 동계 필리핀 단기어학연수 결과보고서

1. 기본정보

파견국가	필리핀	파견도시	수빅
파견대학	바탄반도주립대학	기간	2020.01.28.~2020.02.22.

2. 파견대학, 수업, 필드트립 등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p>대학교 주변에는 아무것도 없긴하지만 10~15분 정도 걸으면 스타벅스랑 로알마트가 있다. 그 주변에는 마사지하는 곳도 있고 한인식당도 있었다. 대학교 규모는 생각보다 크지는 않았다. 그러나 수영장도 있고 기숙사 시설도 나름 괜찮았다. 다만 벌레가 자주 나온다는 단점이 있다. 엄청 작은 개미들이 많고 바퀴벌레도 꽤나 자주 나왔다.. 그리고 기숙사 방에 있으면 와이파이가 잘 안터지고 너무 느려서 조금 아쉬웠다. 그래도 로비에 있으면 와이파이가 터져서 다들 저녁되면 로비에 모여서 와이파이 쓰곤 했다.</p>
수업	<p>일단 수업은 하루에 총 8시간으로 1:1 수업 4시간 그룹 수업 4시간으로 이루어진다. 처음에 레벨 테스트를 통해서 그룹과 선생님들과 책 레벨이 결정이 된다. 배정된 선생님이 본인과 안맞을 경우에는 바꿀 수도 있지만 매일 거의 지나가다가 한번씩은 어떻게든 보게 되서 진짜 선생님과 안맞는 것 아니면 안바꾸는 것을 추천한다. 수업 내용은 그룹 같은 경우에는 토익 스피킹 2시간, mmc, face to face 시간이 있습니다. 토익 스피킹은 파트 1부터 파트 6까지 공부를 하고 매주 나간 범위를 간단하게 시험을 치고 선생님이 피드백을 해주셨다. Mmc는 간단하게 영상 만드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한달동안 뮤직비디오와 광고를 하나씩 만들어야하는데 이 수업 시간에 어떻게 만들지 생각하고 이야기하고 영상 찍고 하면 된다. 그리고 face to face는 말 그대로 얼굴 마주보고 이야기 하는 시간이였다. 처음에는 책으로 공부하다가 나중에는 그냥 프리토킹을 많이 했다. 그리고 1:1 수업은 vocabulary 2시간 reading 2시간으로 이루어져있다. 선생님이랑 책보면서 책에 나오는 내용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면서 이야기 하는 시간이였다. 처음에는 어색해서 시간이 잘안간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는 친해지니깐 50분이 아쉬울 정도로 금방 시간이 갔다. 그리고 과제는 토익스피킹만 있었었는데 선생님이 해오라고 한 파트를 수업이 끝난 후에 녹음해서 선생님에게 보내면 되는 간단한 숙제였다. 숙제는 매일 내주는 것이 아</p>

필드트립	나라 나는 한달동안 2번정도 있었다. 개인적으로 조금 힘들었던 점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해서 1교시 수업이 상대적으로 힘든 것 빼고는 전반적인 수업에 대해서 아주 만족스러웠다.
	1주차 activity는 요트 투어였다. 기숙사에서 차로 3~5분정도 가서 내려서 요트를 타러 갔다. 20-30분정도 달려서 바다 한 가운데 멈춰서 점심도 먹고 사진도 찍고 수영도 할 수 있다. 따라서 수영을 하고 싶으면 수영복이랑 수건 등을 준비해서 가면 된다.
	2주차 activity는 Mt. Samat 산에 갔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추웠다. 일단 산 정상이라 그런지 바람이 너무 많이 불었다. 그래서 여기 갈때는 조금 긴 옷을 입고 가면 좋을 것 같다.
	3주차 activity는 원래 클락 공항 근처에 sm몰에 가서 쇼핑하고 박물관도 가고 영화도 보는 계획이었지만 코로나 때문에 취소되었다.
	4주차 activity는 수빅 워터파크에 갔습니다. 솔직히 했던 액티비티 중에 이게 제일 재밌었다. 우리나라 워터파크에 비해서 엄청 큰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아주 재밌었다. 주말 액티비티 외에 주중 액티비티도 있는데 매주 화요일마다 3-5시에 진행된다. 카페테리아에 모여서 다같이 게임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여러가지 활동을 하게 된다. 그리고 매주 금요일은 fun Friday로 컬러풀한 옷입고오기, 7080 패션 입고오기, 파자마 입고오기와 같은 드레스 코드를 정해서 선생님, 학생 모두가 입고 온다.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일주일엔 비가 한번씩은 올 줄 알아서 우산도 준비해 갔었지만 필리핀에 있었던 동안 비는 진짜 한번밖에 안왔다. 대부분의 날씨가 너무 좋았다. 낮에는 진짜 너무 더운데 밤이 되면 선선해져서 조금 춥다고 느껴질 때도 있었다.
안전	기숙사에는 가드분들도 있고 버디 선생님도 계시기 때문에 크게 안전상 위험은 없었다.

숙소	기숙사는 생각했던 것보다 좋았다. 시설도 나쁘지 않고 좋다. 다만 벌레가 많이 나와서 조금 불편하다. 작은 개미부터 바퀴벌레도 종종 나온다. 그리고 한가지 더 불편한 점은 기숙사 방에서 와이파이가 아예 안터지는 불편함이 있다.
식사	학교식당 (○) 외부식당 (○) 기타 () 학교 식당에서 아침, 점심, 저녁을 제공한다. 그러나 아침은 7시부터 주기 때문에 피곤해서 먹어 본 적은 없다. 친구들말로는 토스트도 나오고 맛있는데 많이 나온다고 했었다. 내가 학교 식당에서 먹은거는 점심인데 진짜 웬만한 학식보다 훨씬 더 맛있다. 과일도 나오고 다양한 맛있는 한식들이 나온다. 대부분의 저녁은 외부식당에서 사먹었는데 대부분 음식이 잘맞아서 괜찮았다. 다만 약간 음식이 전체적으로 조금 짜다.
교통	FB를 타거나 택시를 탔다. 사람들 많이 모아서 FB 타고 나가고 돌아올때도 사람들 모아서 FB타고 들어오곤 했다. FB가 없는 경우에만 택시를 탔다. FB는 기숙사에서 나갈 때는 콜비 포함해서 200페소 정도 부르고, 기숙사로 들어올때는 130~150 페소정도 부르는데 적당히 깎아서 타면 된다.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원

항목	비용(원)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환전	약 580000원(500달러)	
클락항공세	14000원(600페소)	
항공료, 유학허가증(SSP)	690000원	출국 전 사전 납부
합계	1284000원	

5. 출국 전 준비사항

너무 여름이라고 생각해서 반팔, 반바지만 가져가는 것보다는 걸칠 수 있는 얇은 남방이나 집업 같은 것을 챙기면 좋을 것 같다. 수업이 진행되는 교실은 째깍한 에어컨 바람으로 조금 춥기 때문에 걸칠 옷이 필요하다. 그리고 노트북은 들고갈까말까 하다가 안들고

갔었는데 MMC영상는 폰으로도 편집이 가능하기 때문에 노트북 없어도 큰 불편함은 못 느꼈다. 그리고 환전은 기본적으로 400달러는 해야 하는 것 같고 기념품 살거 생각하면 500달러 정도면 충분하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필요한 약은 사전에 준비 해오는게 좋다. 그리고 선생님들 선물이랑 편지지도 미리 준비해오면 좋다.

6. 본인 소감 및 평가

필리핀 가기전에 생각했던 것 보다 너무 재미있었고 같이 간 친구들도 너무 좋았고 정말 잊지 못할 추억을 많이 만든 것 같다. 처음에는 아는 사람 하나 없이 간 거여서 한달이 빨리 지나갈까? 빨리 집가고 싶다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친구들이랑 친해지고 선생님들이랑도 친해지고, 필리핀 생활에 적응하고나니 정말 시간이 너무 빠르게 지나갔다. 그렇기 때문에 남은 하루 하루가 너무 소중하게 생각이 들었다. 물론 처음에는 하루에 8시간씩 수업을 들어야 한다는 것에 부담감이 있었고 아침 일찍 일어나야 한다는 것에 대한 부담감도 있었다. 물론 한달내내 여전히 아침에 일어나는 것은 힘들었지만 그 덕분에 하루하루가 아주 길었고 더욱 알차게 느껴졌던 것 같다. 지금와서 생각해보면 선생님과 함께 하는 수업도 다 행복한 경험이었다. 그래도 제일 좋았던 것은 여기서 만난 사람들이다. 같이 간 좋은 사람들이랑 함께 한달 동안 너무 재밌게 놀고 먹고 같이 지내고 했기에 더욱 좋은 추억으로 남는 것 같다. 이 모든 것이 나에겐 새로운 경험이고 정말 잊지 못할 추억이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이 프로그램에 지원하려고 고민하고 있다면, 주저없이 바로 신청하라고 말하고 싶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필수)



Fun Friday – colorful day



Movie day



Mmc festival



Pizza party



lunch



Water park